

최근 3년 축구장 83개 면적 제주 산림 훼손

각종 불법행위 154건 적발·피해면적만 57.8ha

불법산지 전용 '최대'... "농지 조성하다 위반"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불법 행위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57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0.7ha) 약 8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 내 불법행위 건수는 154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57.8ha에 달했다.

산림피해는 불법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다양한 형태로 발

생하고 있었는데, 그 중 허가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산지 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 전용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사 야적·지반정리·농로·자연석과 임산물 채취 등 기타 17건, 무허가벌채 14건 순이었다.

피해면적으로는 불법산지 전용(44.66ha)이 가장 컸고 무허가벌채(12.2ha), 기타(0.4ha)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산지 전용 피해는 적발건수만 보면 2023년 36건(10.8ha)에서 2024년 43건(22.06ha), 2025년 43건(11.8ha)으로 늘었다. 농지 조성하고 농로·임도 개설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농로·임도개설 14건(4.8ha), 농경지 조성 11건(2.7ha) 등 전체 피해 건수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섰다.

무허가 벌채 피해는 2023년 10건(11.3ha)에서 2024년 3건(0.3ha), 2025년 2건(0.6ha)으로 감소 추세다.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수사하는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보통 농지로 사용하려고 전용하다 위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산림 훼손과 관련한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산림자원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산림훼손 관련 사건 216건(2023년 82건, 2024년 71건, 2025년 6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2월말 기준)에도 6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잇단 차량 교통사고·화재... 6명 부상

제주에서 차량 사고와 화재가 잇따르면서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8시51분쯤 제주시 화북2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탑승자 2명과 승합차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 사진

또 이날 오전 7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한 도로에서는 1t 트럭과 1t 탑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와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21분쯤 제주시 봉개동에서는 SUV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전 8시 45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천리의 한 도로에서는 1t 트럭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경주마서 금지약물 검출

경찰, 용의자 추적 나서

한국마사회가 제주 경주마 금지약물 검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의뢰를 받고 경주마 3마리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사건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달 6일과 14일에 각각 1위, 3위, 2위로 도착한 경주마에서 투약이 금지된 약물인 '난드롤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사회 자체 조사 결과 약물을 내부에서 투여한 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20일부터 경주를 중단하고 경주마 500여마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자전거 타기 좋은 날 2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들이 함치게 질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특수교육 영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6개월 미만 대상 운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생후 36개월 미만 특수교육 대상 영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3일부터 특수교육 대상 영아 내방 교육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은 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지원실에서 이뤄지며,

놀이 중심 개별화 교육이 중심이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장애 영아의 치료를 지원하고 가족·지원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애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과 보호자 교육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치료 지원 서비스는 언어·물리·

작업 치료 등 영아기 발달에 필요한 전문 재활 영역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제주희망나눔카드'를 활용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도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했다.

김지혜 교육장은 "장애 영아기에 이뤄지는 조기 개입은 향후 아이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수교육 대상 영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jieun@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흥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